한국통신 노동조합 간부상

조합원보다 먼저 출근하는 노동조합 간부
조합간부는 업무상 늦은 귀가로 다음날 출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절제된 규율로 조합원보다 먼저 출근해야 한다.

현장 활동을 우선시 하는 노동조합 간부
지부에서 조합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속으로 들어가는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하겠다.

경어를 사용하는 노동조합 간부
상대방을 존중할 때 노동조합 간부도 존중 받을 수 있기에 경어를 사용을 강조했다.

홍보,선전 활동에 적극 노력하는 노동조합 간부
홍보는 핏줄을 통해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차단되면 노동조합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노동조합 행사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일보다 우선해 노동조합의 회의, 교육, 집회 등에 참가할 것이다.

도덕적인 노동조합 간부
조합간부는 개인 이전에 공인이기에 공인으로서의 도덕적인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의 신뢰를 받는 노동조합 간부
노동조합 활동으로 조합간부는 가족에게 소홀해질수 있다. 시간이 모자란 대신 의식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공부하는 노동조합 간부
조합간부는 현안문제, 노동문제, 사회문제 등을 조합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에 간부는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시간약속을 지키는 노동조합 간부
시간약속을 지키는 것은 서로간 신뢰를 유지해준다. 조합간부도 회의, 교육, 집회 등 시간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정당하게 평가받는 노동조합 간부
노동조합간부가 조합원에 앞서 승진이나 특혜 및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기본을 지키는 집행부 될 것

하부조직 강화 … 현장에서 조합원과 함께 활동하는 간부상 제시

한국통신노동조합은 1994년 조합원 총회를 통해 민주노조를 탄생시키며 한국최대 단위 노동조합으로 노사관계 및 노동운동에서 일대 개혁과 혁신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고인 물은 썩는다고 했다. 조합간부는 관성화 되어 일상적인 집행업무를 소홀히 하고 사측과의 관계에서도 오해를 낳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을 현장 조합원들은 보고만 있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먼저 개혁을 요구했고 청렴한 도덕성을 바랐다. 그리하여 2003년 제8대 노동조합 선거에서 당당한 노동조합 집행부가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내며 탄생했다.

우리 8대 집행부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집행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집행부, 현장성 있는 집행부라는 3대 기조를 중심으로 항상 조합원과 같이 있는 집행부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 동안 노동조합이 정체돼 있으면서 지부와 분회 등 하부조직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집행부는 지부부서장회의를 강화하고 각 지부간 유기적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또한 충분한 내용의 공유와 의견수렴을 통해 조직간 책임전가하는 행위를 완전 해소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직강화를 바탕으로 사측을 압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단기적 사안에 얽메이고 사측이 제시한 안건에 반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연구소설립을 시작으로 중장기 대안과 KT발전방향을 먼저 제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겠다.

또한 지금까지 중앙에서 활동하다 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간과하고 상집간부 개인의 소견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래에서 위로 전달되는 문제제안과 정책을 개발할 것이다. 복지제도, 주5일제 근무, 상품판매 등 여러가지 현안을 대처하기위해 먼저 현장조합원과 각 지방본부 및 지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실행에 옮기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의 진행과 결과를 투명하게 조합원에 전달하겠다. 유리한 것은 알리고 불리한 것은 숨기는 과거의 관행은 이제 묻어버리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공개하고 평가 받을 것이다.

우리 속담에 돌쩌귀에는 녹이 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문이 열고 닫히는 한 녹이 슬새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 8대 집행부는 조합원의 요구와 어려움이 있는 한 끊임없는 자기성찰 속에 원칙을 지키는 간부, 대안을 제시하는 간부, 활동하는 간부로서의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지난 1월 6일 본사 강당에서 신임 한국통신노동조합 지재식 위원장이 취임소감을 밝히고 있다.

지방본부위원장 인사말

강북지방본부 – 김태호

이제 당당하게 첫걸음을 내딛는 강북지방본부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느낍니다. 저는 이 무거운 짐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세월 조직간의 갈등으로 치부되었던 강북지방본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간부들만의 조직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강북지방본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재식 위원장이 취임식에서 말씀하셨듯이 간부중심에서 조합원중심으로, 중앙중심에서 현업중심으로, 그리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실현하는 지방본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기마다 개최되는 지부단위 노사협의회를 현실화하고 지방본부 정기노사협의회에서 조합원들의 안건을 관철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부별 권역별 교육 및 수련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조합원이 절실히 느끼고 요구하는 고용불안에 대해서도 회사와의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며 중앙본부와 협조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강북지방본부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잘못된 점은 질타해주시고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강남지방본부 – 이현광

민영화 원년에 새롭게 출범하는 8대집행부는 조합원의 고용을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명과, 변화와 개혁을 통해 조합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노동조합건설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저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이런 일들의 실천을 위해 저의 몇가지 생각들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된 조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직을 달리하던 서울권 조합간부와 경기권 조합간부의 조직단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의, 수련회 등을 통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조직적 일체감을 이루는데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둘째, 조합원에게 신뢰받는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합니다. 새롭고 당당하게 출범하는 8대집행부는 작은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목표를 선정해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셋째, 합리적 경영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선거를 통해 많은 조합원들의 가장 큰 고충이 상품판매 강제할당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민영화에 걸 맞는 상식과 원칙을 가진 경영이 수도권 강남본부에서 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측의 노사간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결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서부지방본부 – 김병탁

저는 수도권 서부지방본부 초대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취임의 기쁨 보다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토대에서 시작하는 지방본부로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민주노조의 정통성 계승과, 우리의 시대적 사명인 개혁과 변화를 이루어내며 기필코, 고용안정을 쟁취 해야만 합니다. 이에 서부지방본부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3년간 추진해 나아 갈 몇가지 소망과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당한 서부지방본부 만들겠습니다. 당당한 지방본부 건설이란 '노 와 사'가 역할을 분담해, 대등한 노사관계 설정을 통한 서로 아껴주며, 함께 발전하는 건전한 노사 관계를 말합니다.

둘째, 조합의 개혁입니다. 조합원에 의한 참된 조합, 열린 조합상을 구현 하겠습니다. 항상 조합원 가까운 곳에서 일하면서 조합원을 참여와 화합과 단결의 마당으로 이끌겠습니다.

셋째, 회사의 합리적 경영방침을 유도하겠습니다. 조합원의 불만을 야기하는 각종 불합리한 경영 방침을 상식이 통하고 조직원의 신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경영 방침으로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부산지방본부 – 정윤모

존경하는 부산지방본부 조합원동지여러분!

제 8대 부산지방본부를 새롭게 이끌고 갈 정윤모 다시 한번 머리숙여 큰절 올립니다. 노동조합의 진정한 힘은 조합원 여러분 한분 한분 참여와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선거기간동안 저는 많은 조합원 동지들을 만나면서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동지여러분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부터 변화하고 개혁하겠습니다. 시대와 조합원동지 여러분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저는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가장 모범적인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정말 멋진 위원장이 되고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달려갈 것을 바라면서, 어렵고 힘든 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동지들을 믿습니다. 또한 현장제일주의로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도 정도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지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바라오며, 항상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당찬노동조합건설!!!

대구지방본부 – 김근주

저는 8대 대구지방본부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취임의 기쁨보다는 노동조합의 당면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구지방본부의 3,600명의 조합원 동지들에게 사측이 노조를 무시하고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불안을 야기 시킨다면 제가 반드시 온몸으로 막아내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진정한 힘은 동지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단결된 모습으로 난관을 극복합시다. 제가 그 투쟁의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조합원 동지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첫째, 노조개혁으로 조합원에 의한 열린 노조를 구현하겠습니다. 항상 조합원의 가까운 곳에서 조합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동조합에 찾아와 허심탄회한 대화와 비판을 할 수 있는 노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고용안정 쟁취로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도록 회사에 요구해 고용안정과 승진적체를 해소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셋째, 복지제도 개선으로 미래지향적 복지정책 구현 등을 통해 조합원 모두에게 평등하고 현실적인 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섭과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본사지방본부 – 김순근

제 8대 본사지방본부를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힘차게 열어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혹자들은 현재의 변화의 물결을 위기라고 말씀 합니다. 저는 이 위기를 노와 사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8대 본사지방본부는 과거의 분열과 우유부단함을 떨쳐버리고 완전민영화에 걸맞는 본사지방본부가 되기 위해 몇 가지 약속 드립니다.

첫째, 살아 움직이는 지방본부가 되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조합원과 함께하고 필요할 때 옆에 있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방본부가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지키고, 올바른 조합활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변할 것입니다,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조합간부가 아니라 희생하며 헌신하는 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과 함께 하는 지방본부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 의견을 하나로 통일시켜 진정 조합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전남지방본부 – 임종대

지방본부는 노동조합의 야전 사령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본부 위원장은 책상에 앉아 행정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부장, 분회장이 지부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후원자가 되고, 조합원 속에서 조합원의 어려움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로 직접 뛰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지부장, 분회장 수련회를 2월중에 실시할 것이며, 월1회 정기교육을 진행하여 지부장의 역량을 높이는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입니다.

또 수시로 조합원이 일하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업무를 거들면서 불편함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지방본부 활동에 적극 수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전남 지방본부가 노동조합의 행사에 적극적이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7대 집행부에서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활용하여, 8대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지방본부가 전남지방본부였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국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북지방본부 – 서철용

반갑습니다. 전북위원장 서철용 뜨거운 가슴으로 동지들게 인사 올립니다.

민영 KT에 걸맞는 8대 집행부는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을 슬로건으로 조합원의 고용을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명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로부터 외면당한 집행부의 신뢰회복과 조합원 대중들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를 개혁을 통해 바꿔야 한다는 책임감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동지들을 생각하며 선봉에서는 전북지역본부 위원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된 조직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조합원 대중들로부터 신뢰받는 조합을 구현해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생산할 것입니다.

또 당당한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리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조합의 제 역할을 다하는 강한 노동조합의 초석이 되도록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강한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단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도
중앙위원장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총단결로 진군합시다.

감사합니다.

충남지방본부 – 남기평

민영화 원년, 한국통신노동조합의 출발은 조합원의 고용안정이 최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노동조합은 정부기관을 상대로 투쟁 및 대국민 선전을 유일한 활동목표로 삼아왔습니다. 회사에서도 노사관계의 책임을 적당히 정부쪽으로 미루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영화가 시작된 이상 경영층과 노동조합과의관계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정책분야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조합 활동이란 곧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을 영위하게 도와주는데 그 기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인적자원,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과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해온 나라가 아직도 이 지구상의 중심축에 서 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휴대전화를 걸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소비자 탓으로만 미루며 직원들만 닦달하는 안일한 경영만 하지 말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해주길 바라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벼랑끝으로 내쫓을 생각만 하지 말고, 좀더 희망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경영진에게 제안합니다.

충북지방본부 – 이창환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출범하는 8대이지만 지난 12월에 동지들이 보여준 결집된 힘과 저력은 앞으로 있을 어려운 노사관계를 힘있고 슬기롭게 풀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충북은 새로운 집행부 출범과 더불어 지부 및 지방본부의 운영방침과 목표를 확실히 제시하고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런 실천을 위하여 급격한 변화보다 조합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 조합활동과 모범적인 조합간부상을 제시하고 각종 노동조합 행사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상집간부의 적극적 활동을 통한 중앙 및 지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현장을발로 뛰는 실천적인 조합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공사라는 개념을 벗어난 완전 민영화된 회사가 됐습니다.따라서 사측 조직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조직도 그에 걸맞는 새로운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정책과 투쟁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지방본부 – 권혁웅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원지방본부 위원장 권혁웅입니다.

2003년은 참으로 힘든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일방적인 조직개편, 2003년도임금협상 등 어느 하나 우리에게는 쉬운 것들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안 하나 하나가 조합원, 대의원, 집행부 모두 하나가 되었을 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은 과도한 목표와 상품판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코 묵과하거나 방관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또한 단체협약과 고용안정, 상품판매 관련 등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8대 집행부는 투쟁만 외치지도 않겠습니다. 노조와 회사는 서로 존중하고 공존해야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희망을 제시하는 당당한 노동조합으로 거듭 나도록 자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지방본부 – 고홍관

노동조합이 바로 서야 조합원의 권익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노동조합은, 인력충원 없는 신규사업이 도입되고, 경영평가라는 미명하에 무차별적인 강제상품판매가 시행돼도 소극적 대응과 책임회피로 일관해 왔습니다.

정책과 대안부재로 인해 합의서만 남발될 뿐, 사측의 논리에 휘말려 조합원들은 절망을 피부로 느껴야만 했던 고통의 시간들이 아직도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제8대 집행부는 KT민영화 후, 중앙, 지방, 지부가 강력한 연대를 통하여 동지들의 고통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초석이 되고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온몸으로 다 바치는 변혁과 개혁의 주체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개혁과 희망을 갈망하는 동지 여러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다 해도 새벽은 우리의 창가를 비출 것이며, 아무리 시린 눈보라가 몰아친다 해도 싹을 피우는 봄은 어느덧 발 아래로 다가와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신뢰와 원칙이 있는 정직한 노동조합을 동지들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원을 위하여 피와 땀을 흘릴 것이며, 그 결실은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당당한 노동조합을 재건하는데 제주 지방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낡고 구태의연한 노동조합의 악습과 폐단은 뿌리뽑고 함께 개혁과 혁신의 주체가 됩시다.